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 열왕기하 7:9-20

신 67 쉼대 대화

일어날 때 아침에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하루 되세요.

길을 갈 때 길을 갈 때 말씀을 적용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던 적이 있습니까?

집에 있을 때 식사 중에 말씀으로 격려해 주세요.

말씀을 담는 믿음의 그릇이 점점 더 커지는 가정이 되도록 해요.

누워 있을 때 잠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찬양

1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은혜의 찬양 443장)

- 1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의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 2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희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후렴]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전에 계셨고 이제도 계시며 장차 곧 오실 만군의 하나님



2 하나님의 말씀은 (찬송가 203장)

- 1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향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 몸 하나님 보호하사 생명 샘이 솟아 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 2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가이없는 큰 은혜로 늘 품어 주십니다
- 3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면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 4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어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말씀 읽기 열왕기하 7:9-20

- 9 나병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별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 10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라 하는지라
- 11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 12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주린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 13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 있는 말 다섯 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 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 14 그들이 병거 둘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 15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 16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와 말씀과 같이 되었고
- 17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으며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 18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 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 19 그 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 20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으며 죽었더라

본문 배경

아람 왕이 군대를 모아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는 식량난에 시달리게 됩니다. 식량이 부족해 물가가 급격히 상승했고, 이로 말미암아 사람을 잡아먹는 지경에 이릅니다. 이때 엘리사가 사마리아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일 사마리아 성에 곡식이 넘치고 정상적인 가격에 팔리게 될 거라고 예언합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왕의 한 장관은 여호와가 하늘에 창을 내어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비꼬입니다(2절). 장관의 말을 들은 엘리사는 그가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겠지만 먹지는 못하리라고 예언합니다.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 뒤 성문 입구에 있던 나병 환자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나병 환자들은 식량난으로 죽을 지경에 이르자 아람 진영에 항복하려

갑니다. 이들이 아람 진영에 도착하기 전 하나님은 대군이 몰려오는 소리를 아람 군대가 듣게 하여 모든 것을 놓고 도망가게 만드십니다. 아람 진영에 도착한 네 명의 나병 환자는 빈 장막을 발견하고 수많은 식량과 전리품을 취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같은 아름다운 소식을 침묵하지 않고 왕궁에 전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왕은 신하를 보내 아람 진영을 확인한 뒤 사마리아 성으로 가져와 백성에게 나눕니다. 엘리사가 예언한 대로 곡식이 넘치고 정상적인 가격에 팔리게 됩니다. 또한 왕의 장관은 이 모든 일을 보았지만 백성에게 밝혀 죽여 그 식량을 먹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해 보여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말씀 관찰

1 나병 환자들이 이스라엘에게 전한 아름다운 소식은 무엇인가요? (9절)

답 아람 군대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도망갔다는 소식입니다.

해설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압박하기 위해 오랜 기간 사마리아 성읍을 포위합니다. 성안에 갇힌 이스라엘은 극심한 식량난에 고통을 받습니다.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을 때에 엘리사가 '내일 이맘때에 재앙이 끝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던 고난이 하루 만에 끝날 것이라는 소식은 믿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성 밖에는 더 이상 성안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없던 나병 환자 네 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아람 진영에 먹을 것을 구하러 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람 진영에 도착해 보니 아람 군대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도망간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람 군대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고 그 소리를 자신들을 공격하러 오는 소리로 착각해서 줄행랑치게 하신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이 기쁨의 소식을 고통 중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 만에 비극이 사라진 것입니다.

2 엘리사의 예언에 부정적이었던 장관에게 벌어진 일은 무엇인가요? (19-20절)

답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해설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자 한 장관은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했습니다(왕하 7:2). 그러자 엘리사는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라고 합니다. 엘리사가 전한 예언대로 한 순간에 식량난이 해결됩니다. 엘리사의 예언을 듣고 믿지 않았던 장관은 몰려든 백성의 발에 밟혀 죽게 됩니다. 회복의 예언뿐 아니라 불신앙에 대한 심판의 예언도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실 때에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만이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믿음의 그릇을 키워 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 적용

1 하나님의 은혜로 최악의 상황이 최고의 상황으로 변한 경험이 있다면 나눠 보세요.

2 나의 믿음의 그릇의 크기를 생각해 보고 그 이유를 가족과 나눠 보세요.

말씀 암송

11-2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잠언 13장 13절

작곡 유라혜

♩ = 58



가정예배 기도문

하나님, 우리 가정의 믿음의 크기가 점점 커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순간에 기쁨으로 큰 영광을 올려 드리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크게 여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모든 것을 성취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